정유4社 중 홀로 4분기 영업흑자… 신규 고도화시설 주효

〈2020〉 〈RUC&ODC〉

매출 4조2803억, 영업이익 931억
석유화학·윤활기유, 실적반등 견인
산화프로필렌 수익성 사상 최고수준

에쓰오일 울산 공장.

에쓰오일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확보한 최첨단 정유 석유화학 시설의 효과를 본격적으로 거두기 시작했다.

에쓰오일은 14일 지난해 4분기 매출 4조2803억원, 영업이익 931억원을 거둬 전 분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내 정유 4사 중 유일하게 4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사업부문별로는 정유사업에서 코로나로 인한 석유 소비 감소로 손실 897억원을 냈으나, 석유화학(727억원), 윤활기유(1101억원) 사업의 선방으로 반등을 이끌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 세계 석유제품 수요 감소와 정제마진 하락 속에서도 석유화학 원료인 산화프로필렌, 윤활기유, 최근 각광받고 있는 저유황 선박유(LSFO) 등 수익성이 좋은 제품의 생산을 최대로 끌어올린 전략이 주효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작년 4분기 산화프로필렌(PO)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스프레드(제품가격에서 원료 가격을 뺀 수치)는 전 분기 톤당 595달러에서 85% 이상 상승한 톤당 1098달러를 기록해 2014년 12월 이래 최고 수준에 올랐다. 산화프로필렌의 수익성은 사상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어 향후 실적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쓰오일은 지난달 28일 잠정실적 발표에서도 "좋은 시황을 이용하기 위해 생산능력이 30만톤인 산화프로필렌 생산을 3~4만톤 정도 더 늘리고 있고, 향후에도 가동률을 높게 유지하려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2018년 말 가동을 개시한 에쓰오일의 신규 고도화시설(RUC&ODC)은 원가경쟁력과 운영 효율성이 세계 최상위권으로 평가된다. 잔사유 고도화시설(RUC)은 원유보다 값싼 중질의 잔사유를 원료로 휘발유, 고급 휘발유 첨가제(MTBE), 석유화학 기초원료인 프로필렌, 에틸렌 등을 생산한다.

또한 이 프로필렌을 올레핀 하류시설(ODC)에 투입해 폴리프로필렌(PP), 산화프로필렌(PO)을 만들어 국내외 석유화학 업체에 공급한다. RUC와 ODC 두 시설은 지난해 3분기 두 달 동안의 정기보수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4분기에는 RUC를 포함한 고도화시설을 완전 가동함으로써 원유정제시설을 100% 가동할 수 있었다.

아울러 에쓰오일의 실적 개선은 올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고도화시설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데다 주요 생산설비가 지난해 정기보수를 마쳐 올해는 가동중단 없는 공장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에쓰오일의 석유화학 주력 제품인 산화프로필렌, 폴리프로필렌 등 올레핀 품목도 올해 각국의 소비진작 정책으로 자동차, 가전, 포장재 부문의 수요 회복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세계 각국에서 경쟁력 없는 설비들의 폐쇄가 늘고 있어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 증가 영향이 제한적인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확산으로 석유제품의 수요가 회복되면서 정제 마진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수요가 더 빨리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회사의 경영실적도 빠르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네오 QLED TV, 게이밍 성능 극대화

삼성전자 명암비 최적화 'HDR' 적용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 탑재

모델이 Neo QLED TV의 게이밍 기능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TV가 게이밍 성능도 대폭 높인다.

삼성전자는 네오 QLED TV 전 라인업에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 기능을 탑재한다고 14일 밝혔다.

프리싱크는 콘솔이나 PC 등 게임 콘텐츠가 디스플레이에서 재생되면서 나타나는 입력 지연이나 화면 끊김, 왜곡 등 현상을 줄이거나 제거해주는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여기에 명암비 최적화 기술인 HDR을 추가해 화면 끊김 없는 부드러운 구동 뿐 아니라 더 선명한 화질도 제공한다.

아울러 네오 QLED에는 다양한 게이밍 관련 기능들도 탑재됐다.

실제 네오 QLED TV는 ▲컬러 볼륨 100%와 12비트 백라이트 컨트롤로 어두운 영상 디테일과 정확한 색상 표현 가능 ▲영상 신호를 처리해 화면에 내보내는 속도인 인풋 랙 최단 시간 적용(5.8ms) ▲업계 최초 와이드 게임 뷰를 통해 21:9, 32:9 등 화면 조절 ▲업계 최초 게임바 기능 ▲모션 엑셀러레이터 터보+로 120Hz의 빠른 게임 모션 구현 ▲번인 걱정 없는 '번인 프리' ▲인공지능(AI) 기반 게임 서라운드 사운드와 무빙 사운드+(OTS+) 등의 기능을 갖췄다.

삼성전자는 사내 토론으로 게임 마니아인 임직원 의견을 청취하며 게이밍 기능 기획을 진행해왔다. 2018년 업계 최초 오토 게임 모드 도입후 4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프리싱크 기술도 TV 콘솔 게임 콘텐츠가 급증할 것이라는 의견을 반영해 도입하게 됐다. 실제로 TV 게이머 80% 이상이 콘솔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개발, 상품기획, UX, 서비스 등 각 분야의 게임 매니아들을 대상으로 게임 관련 과제를 주고 초대형 화면으로 즐기는 게임의 미래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올 경우 이를 적극 채용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성일경 부사장은 "글로벌 TV 시장은 보는 TV에서 즐기는 TV의 시대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다"며 "더 좋은 화질과 큰 화면으로 즐기는 게이밍 경험은 점점 더 중요해 질 것이며, 삼성이 TV 중심의 게이밍 경험을 주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

LG전자, 디지털 전환 속도낸다

'LG데이터 포털' 오픈

LG전자가 임직원들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공개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LG전자는 최근 'LG 데이터 포털'을 오픈하고 임직원 누구에게나 제공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데이터 포털은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대량의 데이터를 클릭 몇 번만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다. '셀프 서비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로는 포털 사이트에 업로드된 누적 데이터를 분석해 의미 있고 효율적인 정보를 도출하고 차트나 그래픽 등 시각화할 수 있다.

LG전자는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사내에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CFO부문 업무혁신담당, CSO부문 DX전략담당, CTO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등 3개 조직이 힘을 모았다.

분석 결과는 유관 부서에 공유할 수 있어 효율성도 높였다. 하나의 분석 결과를 여러 사람이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해 숨은 가치도 발견할 수 있게 했다. 분석 결과 공유 대시보드에 댓글 시스템을 도입해 의견 공유도 가능하다.

각각 관리하던 데이터도 편리하게 분석할 수 있다. 유형과 형태, 활용 영역 등 속성에 따라 업로드한 데이터를 분석해준다. LG전자는 이를 통해 여러 곳에 산재한 데이터를 모을 수도 있다.

LG전자는 트롬 워시타워 '건조준비' 기능 효용성을 검증하며 포털 활용도를 확인했으며, 고객 사용 패턴 분석을 통한 서비스와 프로액티브 서비스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전자 CSO(최고전략책임자) 조주완 부사장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고객가치를 혁신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미래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웅 기자

美 스마트폰 시장, 삼성·애플만 성장

프리미엄 브랜드로 소비 몰려

삼성전자와 애플이 코로나19에도 미국 판매량을 늘리는데 성공했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갤럭시S20 팬에디션을 앞세워 판매량을 전년 동기 대비 5% 늘렸다.

애플도 아이폰12를 새로 출시하면서 판매량을 전년 동기보다 14%나 높였다.

반면 4분기 미국에서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다. 브랜드별로도 LG전자는 12% 줄었고, 노키아는 44%, 모토로라는 69%, ZTE는 83% 떨어졌다.

미국 시장이 전분기 보다는 24% 증가하면서 회복세로 돌아선 상황, 삼성전자와 애플만이 선전했을뿐 다른 브랜드들은 여전히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제프 필드핵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연구원은 "2020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도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100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했고, 이는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하지만 프리미엄 기기는 상대적으로 선전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보복소비가 연말 성수기동안 프리미엄 스마트폰 구매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퀄컴 차세대 칩, 삼성전자서 양산 예상

외신 등 전작에 이어 수주 분석

삼성전자가 퀄컴 차세대 칩을 수주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퀄컴은 최근 차세대 모뎀칩 스냅드래곤 X65를 공개했다.

X65는 4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지는 반도체로, 올 하반기부터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외신 등은 X65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전작인 X60도 삼성전자에서 생산했던 만큼, 이번 모델도 마찬가지로 수주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삼성전자가 4나노 파운드리 양산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일찌감치 4나노 공정을 올해 말부터 시작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현실성은 적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삼성전자가 4나노에 돌입하면 '반도체 비전 2030'도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전망이다. 5나노 경쟁에서는 TSMC를 따라잡지 못했지만, 새로운 미세 공정 경쟁을 벌이면서 추격 발미를 잡아낼 수 있기 때문. 삼성전자가 오랜 기간 공들여온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재웅 기자